

미국, 미심쩍은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 압박

트럼프 '숨방망이' 이행 우려 여차하면 중국 경제제재 불사 “미국에 성의 표시” 분석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분석이다.

중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결의 이행을 의심한다는 제스처를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유엔 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유류공급 30% 차단과 북한산 섬유 수입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가 유엔 결의대로 이행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가

운데 핵심역할인 중국이 다시 '고무줄 제재'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숨방망이' 제재 이행을 걱정하면서 사실상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거론하면서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국을 탈리시스템에서 접근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놔다.

여기에 미 행정부는 중국과 논의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쫓아내고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미흡하게 한다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

더리 보이콧(제3차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내색을 가급적 삼가면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면서도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개막할 다음달 18일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둔 중국으로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대국으로서 '체면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애초 대북 원유공급 금수는 물론 제한 조치에도 응할 수 없었던 중국이 유류 공급 30% 차단에 합의한 것도 미국을 향한 '성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베이징 외교부에선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려고 대북 제재 이행을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변경 단속이나 기존 대북 제재의 이행을 예전보다 철저히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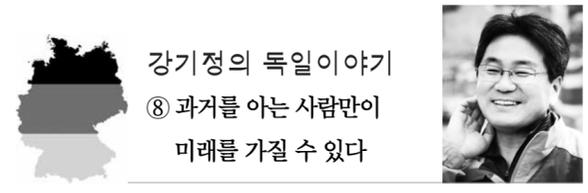
분위기”라면서 “이는 전방위로 압박하는 미국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경상(敬爽) 외교부 대변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지키고 있으며 이번 결의의 요구에 따라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 중단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스스로 알아서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제스처도 취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철광석·납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했다. 또 이달 들어 중국이 북중 접경인 압록강 일대에서의 밀무역 단속을 부쩍 강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이를 국제사회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
⑧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얼마 전 자서전 출간 때문에 방한한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하고 눈물을 흘렸다 한다. 독일 외신기자 한츠페터가 5·18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 그 이야기를 담은 '택시운전사'를 보고 슈뢰더 총리가 눈물을 흘렸더니 독일과 한국의 인연이 새삼스럽다.

독일에 머무는 동안 필자도 독일 영화를 보고 왈칵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다. 나치에 저항하다 처형된 뮌헨 대학생 소피 숲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소피 숲의 마지막 날들'을 보다가 필자의 80년대가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독재에 반대하고,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혀달라 죽어간 이철규, 표정두, 의과대학에 다니다 간첩조작사건으로 14년이나 옥살이를 했던 내 친구 강주우가 생각났다. 영화를 보고 난

규제를 한다.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반성'의 힘이다. 그 반성은 교육을 통해서 유지되고 강화된다. 그래도 누구 하나 '아직도 나치 청산이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청산은 어떠한가. 자국의 군인이 총칼로 자국민을 학살했던 역사가 아직 제대로 진상규명도 안 됐는데 '아직도 5·18이나'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대동고에 다닐 때 5·18을 겪었고,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기억, 사촌형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누나와 함께 전남대병원 인근 환 광목천에 뒹눴던 시신을 사이를 해뒀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한데, 피멍이 든 채 죽어간 이철규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전남대병원 영안실에서 밤을 지낸 기억,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3년 7

난징 대학살 70주년 앞두고 중국, 일본행 단체관광 제한

중국 당국이 국경절 연휴 시즌을 앞두고 일본행 단체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현지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13일 “중국 여행사들에 최근 일본행 단체관광객이 전년 수준을 넘지 말도록 하라는 지침과 함께 일본 출국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도 일본행 비자 심사가 극도로 엄격해졌다고 따라 당분간 일본 관광에 주의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여행업계에는 일본행 관광을 제한하려 듯한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또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작년말부터 취해진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가 일본에 대해서도 취해진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단체관광이 전년 수준을 넘지 말라”는 한 지방의 모객 지침은 오는 12월 13일 난징(南京)대학살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관광 자체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푸젠(福建)성에 간 70명의 중국 관광객이 집단 잠적한 사건도 이번 조치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일 관계에는 별다른 갈등요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에 가는 중국 관광객의 70~80%는 개별관광이어서 단체관광 제한 조치의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동남아 영향력 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지 라자 말레이시아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부패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나지 총리를 초청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중국의 동남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북제재 담판 지으러 11월 중국 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정권 수립의 공신이면서도 미 정부의 대북 전략을 공개한 뒤 백악관에서 퇴출당한 배넌 전 전략가가 이날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기관 CLSA 주최 투자자포럼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가 전했다.

그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도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이 사안에 밝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사실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방문 일정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6차 핵 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가 양 국무위원을 12~13일 미

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양 국무위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뿐 아니라 전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신규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과 같은 북핵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미가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핵 및 미사일 해법 마련과 무역갈등, 남중국해 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놓고 담판을 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아직도 5·18이냐고? 독일의 참회를 보라

후 10월 어느날 저항의 현장, 뮌헨대학을 방문했을 때도 ‘다시 돌이켜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던 소피 숲의 말이 떠올라 숙연해졌다. 그 대상이 독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광주사람이든 인간에 반하는 참혹한 범죄는 슬픔을 주고, 그에 저항하는 인간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에게 나치의 고통스런 역사, 비밀경찰 슈타지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전일의 역사, 군부독재의 역사가 있다. 두 나라의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독일의 노력은 전방위적이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과거범죄를 단절한다. 1970년 서독 총리 빌리브란트는 폴란드 게토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교과서에는 불편한 나치 역사를 그대로 수록했다. 베를린 도시 중심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세웠다. 또 지난 해에는 홀로코스트 학살박물관을 열어 상처의 역사를 드러냈다. 나치부역 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나이 신분에 관계없이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감시대상으로 삼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관련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통독의 공무원이 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통해 엄격히

개월 옥살이를 했던 기억, 5·18을 알리는 시민봉사단 오월의 빛을 만들었던 시간들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아직도 5·18이라는 말은 참으로 아프고 허망했다. 가족과 친구를 잃었던 이들이 눈물로 불렀던 노래를 5·18 기념식장에서 제창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제다. 그래서 독일에서 생각했던 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만 역사청산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대선국면에서 강기정표 공약으로 불리는 ‘5·18 정신의 한민족문화’를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가 남는다. 제도와 법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각자도 ‘일상의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홀로코스트 기념비 앞에서 메르켈 총리가 남긴 말을 되새겨본다.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 <강기정의 독일이야기>는 정치인 강기정이 12년의 의정활동을 잠시 멈추고, 베를린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머물며 기록한 독일의 industry4.0. 에너지, 경제, 정치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청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202,000,000 ▶담양군 용면 용리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454,000,000 ▶장성군 장성읍 유림리 유림제1인근 보전관리지구 임야 90000평 감정가 522,000,000 최저가 522,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광산군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군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월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량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석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근 린 시 설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미북동마을인근 사찰 토지 1575평 건물 183평 감정가 1,200,000,000 최저가 673,000,000 ▶동구 충장로가 스포츠웨어매장 지하1층-지상3층건물 토지 32평 건물 97평 감정가 1,330,000,000 최저가 1,330,000,000 ▶남구 주월동 재석초인근 4층건물 토지 71평 건물 180평 감정가 453,000,000 최저가 453,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336,000,000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